

웅상성당 레지오마리아 성지순례 2007년 10월 14일(일)

감곡 매괴 성모 순례지 성당(청주교구)



"나는 여러분을 만나기 전부터 사랑하였습니다."

매산 기슭 감곡성당으로 오르는 길목의 작은 팻말 내용이 인상적이다.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88호 감곡성당은 파리와방전교회 시잘레(chizalle)신부가 설계, 1928년 공사에 들어가 3년만에 완공한 고딕식 붉은 벽돌 성당은 110년간 충북은 물론 경기 남동부 일원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온 믿음의 고향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다는 36.5m의 중앙종탑에 8각 첨탑 또한 위압감을 주기보다는 포근하게 다가섰고 금세라도 종소리가 퍼질듯 했다. 성당 발치엔 감곡 들녘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다.

감곡 본당(甘谷本堂)은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旺場里) 357-3 소재하는 1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당이다. 1896년 9월 17일 본당으로 설립되었으며, 주보는 매괴의 성모. 설립 당시의 명칭은 '장호원 본당'(長湖院本堂)이다. 감곡매괴성모성당은 처음부터 성모님께 봉헌된 곳이다. 또한 성모신심과 성체신심을 바탕으로 신앙의 못자리가 된 곳이며, 150여명의 성직자와 수도자를 배출한 성소의 못자리이기도 하다.

감곡본당에서만 51년간 사목하다 세상을 떠난 임 가밀로(Bouillon Camill, 부이용, 한국명 임가미, 任加彌) 신부는 감곡 공동체의 주춧돌로 남아 있다. 둥근 차양의 선교사용 모자를 오른손에 들고 긴 수단을 걸친 채 매산기슭 성모광장의 로사리오 성모를 응시하는 듯한 임 가밀로 신부의 동상 모습은 감곡 공동체에 드리워진 임 신부의 그림자를 그만큼 반영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징표들은 1934년 건립된 옛 사제관을 개축, 2002년 10월 개관한 '유물관'에 풍부하게 담겨 있다. 1914년 국내 첫 성체거동 때부터 사용했던 성광과 금색 제의, 영대, 구두, 그리고 정약중(아우구스티노) 순교자가 지은 <주교요지(主教要旨)> 1906년판 등 문서류, 본당사를 개괄한 각종 사진 등 50여점은 100여년간 신앙의 발자취를 그대로 담고 있다.

더 대단한 것은 향온·향습시설이 완벽한 수장고에 수장된 나머지 250여점의 유물이었다. 선교사들이 사용했던 제구와 서적, 심지어는 은행놀이판과 카드까지 각종 유물이 완벽하게 정리돼 유물번호까지 매겨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돼 있다. 또한 유물관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다락방 성체조배실이다. 햇살이 천장 창문을 통해 야트막하게 비껴드는 성체조배실에 들어서 무릎을 꿇고 빛나는 성광 속 성체를 바라보며 조배를 하노라면, '살아 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기쁨에 금세 빠지게 된다. 역시 국내에서 첫 성체거동을 거행한 성당의 성체조배실답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신앙의 현장이다.

성당에 들어서면 제대 정면에는 한국전쟁 때 인민군에게 7발의 총탄을 맞았다는 본당 주보 목주기도 성모상이 눈에 들어왔다. 프랑스 루르드성지에서 제작돼 1930년 성전 봉헌 당시 제대 중앙에 안치된 성모상은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건재했다. 성당 내부 천장 원형 돔(Dome)이나 제대 양쪽의 4개 소제대, 기둥으로 구분되어 세계의 회랑으로 나뉘어진 십자석, 라틴 십자형 평면 구성은 국내 다른 옛 성당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성체신심'과 '성모신심'을 두 기둥으로 삼아 성장해온 감곡매괴성당은 한마디로 임 가밀로 신부를 통한 성모님 사랑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감곡 성당의 성모신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한국 선교사 임 가밀로 신부의 성모신심을 이해하는 것이 열쇠다. 1869년 성모발현지 루르드에서 불과 2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프랑스 남서부 타르브교구 비에유 아되르에서 태어난 임 신부는 정기적으로 어머니와 함께 루르드를 방문, 자신을 루르드 성모께 봉헌하며 성장했다.

1893년 사제 수품 후 그해 9월 조선에 입국한 임 신부의 성모신심은 감곡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꽃을 피우게 된다. 그 대표적 사례가 매산 중턱의 신사(神社) 건립 사건. 일본인들이 매산 중턱에 신사를 지으려고 한 것은 1943년. 이에 임 신부는 성당 뒷쪽 매산에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무염시태) 기적의 패'를 묻어 두고 성모께 "이 공사를 중단하게 해주신다면 이곳을 성모님께 봉헌하겠다"고 기도했다. 그런데 일인들이 공사를 진행하려 하면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큰 짐승이 출현하는 바람에 번번히 공사가 중단됐으며 결국 2년 뒤 해방이 되면서 공사는 완전히 중단됐다고 전해진다.

그 뒤 1955년 8월 15일 매산 중턱은 성모광장으로 봉헌됐고, 이후 성모광장은 감곡본당이 1914년부터 해마다 거행해온 성체거동 행사의 장소로 자리잡았다. 따라서 감곡성당을 찾는다면, 성모광장을 중심으로 한 매산은 잊지않고 꼭 둘러보아야 할 '기도의 산'이 됐다. 성당 교육관을 지나 목주기도 15현의(玄義), 성모 광장, 십자가의 길 14처를 따라 매산 정상에 걸쳐 성당으로 돌아오는 기도 행로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기도의 풍요로움을 간직하고 있다. 평일이라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소박하면서도 단아하고 고요하면서도 평화스러운 매산 기슭에서 호젓하게 1시간 안팎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를 바칠 수 있는 매력적 기도처가 되고 있다.

매산 초입에 들어서면 마주하게 되는 '목주기도 15현의'는 특히 목주기도 15단을 조각으로 표현해 놓은 기도처로, 성모신심의 진수를 보여준다. "성모신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생활의 중심에 두고 성모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생활의 전부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를 통해 성모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한 감곡 공동체는 임 가밀로 신부를 통해 성모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성당 일대를 '매괴 성모 순례지'로 개발 하고 있다. 1896년 여주 부엉골에서 사목할 당시 임 가밀로 신부는 이곳 매산 언덕에 있는 명성황후 육촌오빠 민응식의 109칸짜리 저택을 보고 성모님, 저 대궐같은 집을 주신다면 당신의 비천한 종이 되겠고 주보는 매괴 성모님이 ♪ 되실 것이라고 기도했다. 그 기도의 결실이 '매괴 성모 순례지'의 개발로 마무리되고 있는 셈이다. 매괴 성모 순례지 개발은 특히 '어머니의 품'이라는 주제 속에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도와 성체성사 적극 참여, 고해성사, 성체조배, 희생 및 금식 권면 등 성모께서 루르드나 파티마, 메주고리에 등지에서 발현해 남기신 다섯 가지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매달 첫 토요일 8시마다 진행되는 '기도와 찬미의 밤'은 매괴 성모순례지의 핵심 프로그램이다. 또 평일이나 주말 1일 피정 희망자들을 위해 미사와 감곡 매괴성당 소개, 매괴유물관 관람, 성체조배, 산상 십자가의 길 기도, 음악피정 등으로 이뤄진 1일피정을 진행하고 있다.

■ 감곡 성당의 설립과 정착

장호원 지역은 본래 부엉골 본당 관할 구역에 들어 있었다. 부엉골은 현 경기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康川面釜坪里)에 있던 산간 마을로 1885년 예수성심신학교가 설립되면서 교우촌이 조성되었고, 1887년 신학교가 서울 용산으로 이전한 뒤에도 얼마 동안 본당으로 남아 있었다. 그 후 장호원 지역이 기록에 나타나는 것은 1894년 봄 부엉골 본당 신부로 부임한 부이용(Bouillon, 任加彌) 신부 때였다. 그는 이곳에 부임한 뒤 본당 위치가 적당치 않음을 깨닫고 장차 이를 이전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1896년 5월 장호원의 매산 언덕에 자리 잡고 있던 한옥을 매입하게 되었다. 이집은 본래 임오군란 때 명성황후가 일시 피신하기도 했던 민응식(閔應植)의 한옥으로 그 전해 말 의병과 일본군의 전쟁 속에서 불타 버린 상태였다. 위텔(Mutel, 閔德孝) 주교의 허락을 얻어 이를 매입하게 된 부이용 신부는 부엉골에 거처하면서 불탄 집을 수리하였으나 일이 여의치 않자 예정을 앞당겨 1896년 9월 17일 장호원으로의 본당 이전을 결행하였다. 이로써 부엉골 본당은 폐지되었다. 당시 장호원에는 신자수가 5-6명에 불과하였지만, 본당의

관할 지역은 매우 넓어 경기도 여주, 이천, 충청도 단양, 제천, 충주, 음성, 괴산, 진천, 청주, 보은 등이 여기에 속하였으며, 공소수 27개에 총신자수는 1,300여 명에 이르고 있었다. 장호원에 정착한 뒤 부이용 신부는 우선 사제관과 그에 딸린 소성당 공사를 계속하여 그 해 12월 5일 이를 완공하였다. 그러나 장호원 자체의 신자수가 증가하였고. 또 20여개에 이르는 공소의 신자들도 증가하는 상태였으므로 성당 건립이 시급하였다. 이에 그는 1903년 성당 신축을 시작하여 다음해 9월에 이를 완공하고. 그 해 10월 2일 위털 주교의 집전으로 축성식을 갖게 되었다. 신축 성당의 규모는 한옥과 양옥의 절충식으로 총 80평에 달했다.

■ 성장과 변모

본당이 점차 정착되면서 부이용 신부는 우선 교육 사업에 눈을 돌렸다. 이에 그는 1907년 남학교인 매괴학당을 설립하고 이어 1912년에는 여학교를 설립했는데. 그중 여학교는 그 해 본당에 부임한 살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수녀들이 교육을 담당했다. 이들 학교는 이듬해 6년제 보통학교로 과정이 변경되었다. 한편 부이용 신부는 조림 사업에 출선수범하였으며, 1914년부터 매산(장미의 언덕)에서 성체 거동을 시작하였고. 1922년에 학교 건물을 1차 개축하였다가 1936년 정식인가를 받고 3층 교사로 증축하였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본당에서는 1930년 10월 7일에는 종각 높이가 130척이 넘는 현재의 고딕 연와조 성당을 신축하고. 1933년 본당 성가집을 편찬 간행하였다. 이렇듯 부이용 신부와 신자들의 열성으로 본당의 교세도 크게 증가하여 1937년에는 총 신자수가 2,150명이 되었다. 일제 말기가 되면서 다른 본당들과 마찬가지로 장호원 본당도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였다. 일본인들의 감시와 간섭이 계속되었고, 1942년에는 보좌 조인환(曹仁煥)(베드로) 신부가 사소한 일로 투옥되기까지 하였다. 한편 일제 당국에서는 매산 언덕에 자기네들의 신사(神社)를 건립하려고 획책한 일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해 부이용 신부가 일본인들의 적국인 프랑스 선교사라는 이유 때문에 용산신학교에 연금되어야 했다. 그 결과 장금구(莊金龜, 그리소스토모) 신부가 제2대 본당 주임으로 부임하게 되었고. 이어 다음해에는 유영근(劉榮根, 요한)신부가 부임하여 해방을 맞이하였다. 이때 신자들은 한일합병 당시 부이용 신부가 제대 밑에 숨겨 두었던 태극기를 계양하고, 부이용 신부를 맞이하여 광복의 기쁨을 맛보았다. 부이용 신부는 이해 11월 제4대 주임으로 다시 부임하여 활동하다가 1947년 10월 선종하였고, 뒤를 이어 보좌로 활동하던 박고안(朴稿安, 프란치스코) 신부가 주임으로 임명되어 6. 25 동란을 겪었으며, 그 후 1953년 3월에 매괴학당을 매괴상업학교로 변경하였다. 이 학교는 1966년에 여자중학교를 병설한 뒤 학칙을 변경하여 매괴여자중 . 상업학교로 인가를 받았으나, 국민학교는 1972년에 폐교되었다. 한편 감곡 본당은 충청북도의 모본당으로서 그 동안 많은 자본당을 낳게 되었다. 1920년 고마리 본당(증평 본당의 전신), 1932년 청주 본당(수동 본당의 전신), 1945년 충주 본당, 1957년 무극 본당(현 금왕 본당) 등이 분할 설립되었으며. 다시 이로부터 여러 자본당들이 분리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묘지의 매입, 자선 활동. 신심 활동 등을 통해 본당을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공동체로 성장시켜 왔으며, 1986년 본당 설립 90주년을 맞이하여 성모 동산을 정비하고 부이용 신부의 입상을 제작, 축성하는 동시에 <감곡 본당 90년사>를 편찬 간행하였다.

◆ 청주교구 감곡본당과 태극기

구한말의 태극기는 청주교구 감곡본당에도 인연이 이어졌다.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임 가밀로 신부는 한불조약 이후 조선에 입국, 고종황제로부터 직접 태극기를 하사받는다. 이 태극기가 그 유명한 감곡성당 소장본 태극기로, 안타깝게도 현재는 사진만 남아있을 뿐 원본 태극기는 전해지지 않는다. 이 태극기는 1886년 조선 외교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청의 간섭을 신랄하게 비난했던 데니(Deny, Owen N)가 소장했던 태극기와 동일한 형태로, 태극 음방과 양방의 몸체가 가늘고 길게 그려져 있으며 1874년 청나라에서 발간된 룽통상 조약장정성안취편뵤이라는 책 표지에 그려진 태극문양인 통상약장태극문양과 비슷하지만 음방과 양방의 위치가 다르다. 감곡본당 신자들은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되자 이 태극기를 본떠 태극기를 그려 만세를 불렀고 광복의 기쁨을 나눴다. 감곡본당 소장 태극기는 1950년께 충북도청에서 빌려간 후 행방을 알 수 없다.

◆ 청주교구 감곡성당, 매괴성모순례지로 공식 선포

청주교구장 장봉훈 주교는 2006년 10월 7일 감곡본당 주보인 '묵주 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을 맞아 교서를 발표, 교회법 제1230조와 1232조에 따라 올해로 본당 설립 110주년을 맞은 감곡성당을 매괴 성모 순례지로 승인했다. 성모순례지 지정은 1991년 10월1일 성모께 봉헌된 수원교구 남양성모성지에 이어 한국 교회에서 두번째다. 장 주교는 이날 '매괴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제목의 교서를 통해 "지난 110년간 감곡매괴성모성당은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전능이 성모님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난 은총의 자리가 돼 왔다"며 "지난 7월26일 본당 설정

110주년을 앞두고 감곡성당을 '성모 순례지'로 승인해줄 것을 공식 청원해옴에 따라 매괴 성모 순례지로 승인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장 주교는 성모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 은총의 표징들로 △성당 옆 매괴성모광장이 일제 강점기 중 신사참배터로 지정돼 공사를 계획했으나 천둥과 소나기, 벼락으로 일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고 △1950년 한국전쟁 중에는 공산당원들이 성당 제대 중앙에 모셔진 매괴 성모상에 총을 쏘았으나 7군데 탄흔이 남는 가운데서도 파괴되지 않아 지금까지 성모칠고를 목상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초대 주임 임 가밀로(Camillus Bouillon) 신부를 하느님께서 사제로 선택하고 감곡성당에 파견, 감곡본당 공동체에 성모께 대한 신심과 사랑이 전해져 150여명 성직자와 수도자를 통해 성모신심이 오늘에까지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점도 꼽았다.

- ◆ 본당홈페이지(ungsang.pbcbs.co.kr) 사제관 - 강론말씀에서 3번째 "기도와 찬미의밤"을 클릭하시면 김우열(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의 강론을 들으실수 있습니다.



매괴 성모님을

프랑스 루르드에서 제작하여

1930년 대성전 건립당시 제대 중앙에 안치 되었는데 한국전쟁때 인민군의 총을 7발이나 맞는 사건이 일어났다.

총구멍만 남아 있고 간재하게 서계신 성모님의 모습은

주보성인으로서 본당을 수호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심을 알수 있다.

7발의 총알은 성모님께서 당하셨던 성모칠고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연 풍 성 지



성 황석두 루가의 고향이며 최양업 신부의 발자취가 서려 있는 곳

연풍은 갈매뭇에서 순교한 성 황석두 루가의 고향이며 최양업 신부의 발자취가 서려 있는 곳으로 초대 교회부터 신앙 공동체가 형성돼 있던 뿌리 깊은 교우촌이다. 연풍 마을과 문경 새재의 구석구석마다 선조들의 자취와 피의 순교 역사가 어려 있다.

새들도 쉬어 가며 넘는다는 문경 새재(鳥嶺). 서울에서 충주와 수안보 온천 지대를 지나 30여 리를 가면 만나는 곳이 충청도 연풍(延豊)이고, 이곳에서 다시 심하게 굽은 고개를 올라 조령, 조곡, 주흘 등 세 개의 관문을 지나면 경상도 문경이 나온다. 경북 문경과 충북 괴산을 접하고 있는 문경 새재를 넘어서면 괴산군 남동쪽 끝에 연풍면이 나선다. 해발 1,017미터의 험준한 고갯길, 새재의 서쪽 기슭에 연풍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연풍은 전체가 소백 산맥의 산릉에 속한 험지이고 문경군과 접경지대에 조령산과 백화산 등 소백 산맥의 주봉들이 높이 솟아 있다. 그만큼 험난하기에 예로부터 경기, 서울을 중심으로 일어난 박해를 피해 충청도와 경상도로 새로운 은신처를 찾아 나서는 순교자들의 피난의 요로로 일찍이 교우촌이 형성 됐다. 남부 여대(男負女戴)로 보따리를 싸서 박해의 서슬을 피해 연풍으로 몰린 교우들은 새재라는 천험의 도주로를 이용해 여차 하면 밤을 틈타 험준한 산 속으로 숨어들어 새재 제 1·2·3관문 성벽 밑에 있는 수구문(水口門)을 통해 문경 땅을 넘나들며 모진 박해를 피할 수 있었다.

죄인 아닌 죄인, 도둑 아닌 도둑으로 한스럽게 살았던 교우들이 관문을 지키는 수문장이 잠깐 눈을 붙인 틈을 타 숨죽여 가며 드나들던 그 수구문은 지금도 그대로이다.

연풍성지에 들어가면 제일처음 십자가의 길을 만나게된다. 조그맣게 기둥을 세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십자가의 길을 마치면 성지 가운데에 야외성당으로 들어간다. 야외성당에는 커다란 십자가고상이 있고 그 옆으로 요한과 성모님이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연풍성지는 황석두(루가)성인과 관련이 많은 성지인데 성인의 동상과 함께 갈매뭇에서 순교하신 다섯성인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성당안에는 성지에 관한 발굴 과정과 간단한 주변지역의 교회사에 관해 언급을 하고 있다. 성지의 한쪽에는 1963년 연풍의 공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들인 300년된 옛날의 향청건물이

있다. 그 앞에는 황석두 성인의 묘가 있고 주변으로 예수님상과 한국 최초의 주교님 노기남주교님 동상도 있다. 연풍성지를 개발하며 3개의 돌형구를 발굴하였다. 첫번째 것(1963)은 절두산 성지에 기증, 보관돼 있으며, 두번째 돌형구(1972)는 성지내 형방건물 정면쪽에 그리고 세번째 돌형구(1992)는 대형 십자가가 있는 치명터로 부터 바로 50m 지점에서 발굴되어 성지내에 전시되어 있다. 돌형구는 직경 1m, 둘레는 4-4.5m의 크기이며 바위돌 가운데에는 직경 25-30cm, 뒷직경 7cm의 원추형 구멍이 뚫려 있다.

연풍과 새재가 기억하는 첫 인물은 최양업 신부이다. 김대건 신부와 함께 마카오에 유학해 13년간의 각고 끝에 사제품을 받은 그는 1849년부터 12년간 새재를 넘나들며 이 지역에 신앙의 꽃을 피운다. 은신처로서 새재의 장점을 심분 활용한 그는 김대건 신부가 1년 남짓 사목한 데 비해 오랫동안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새재 아랫마을인 문경을 진안리의 어느 주막에서 갑자기 병을 얻어 선종했다는 최 신부는 생전에 쉼 없이 넘나들던 새재의 연봉인 배론 신학당 뒷산에 옮겨져 묻힌다.

연풍에서는 황석두 루가 성인의 발자취가 빛을 발한다. 부유한 양반집 자손으로 나이 물에 과거길에 나섰다가 '천국의 과거 시험에 급제'하고 돌아온 그는 3년 동안의 병어리 흉내 끝에 가족들을 모두 입교시킨다. 학식과 신앙이 깊었던 연유로 다블뤼 안 주교는 그를 회장으로 두고 성서 번역과 사전 편찬에 종사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신앙에 눈뜬 뒤 그는 정결을 지키는 생활을 해 페레올 주교가 그를 사제로 서품하려 했으나 부인이 들어가 있을 정식 수녀원이 조선에 없다는 이유로 교황청의 허락을 못 받았다. 병인박해 때 서울에서 가진 고문과 회유를 받던 황석두는 참수형을 받고 순교의 날을 기다린다. 하지만 당시에 왕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피를 흘리라는 조정의 지시에 따라 서울에서 250리 길이나 떨어진 보령의 갈매곶으로 이동한다. 안 다블뤼 주교님과 위앵 신부님, 오 매스트로 신부님, 장주기(요셉) 과 함께 칼을 받은 황석두는 후에 다른 네분의 성인과 함께 성인의 반열에 오르신다.

연풍에는 또 한가지 웃지 못할 일화가 전해진다. 병인박해로 한국 교회는 9명의 성직자를 잃었다. 천신만고로 세 명의 선교사가 목숨을 건졌는데 그중 칼레 신부에 얽힌 이야기가 그것이다. 달레의 「한국 천주교회사」에 의하면 칼레 신부가 연풍을 지나다가 포졸들에게 발각돼 도망 치다가 붙잡히려는 찰나에 그만 전대가 풀어져 돈이 떨어졌다. 그를 쫓던 포졸들은 돈을 줍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 틈에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연풍 성지가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963년 연풍공소로 옛날 향청 건물을 사들이게 되면서 부터라고 한다. 3백년이나 묵은 이 건물을 매입할 당시만 해도 이곳이 순교 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다. 하지만 매입후 논과 집터 정리 작업 중에 박해 때 죄인들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된 돌형구가 3개나 발견됐다. 또 1968년 시복식 후 황석두 성인의 고향이 연풍으로 드러남에 따라 성지 개발이 가시화 됐다. 1979년에는 평해 황씨 문중산에 묻힌 황석두 성인의 유해를 확인, 1982년 연풍성지로 이장했다. 연풍성지와 관련하여 선종하신 오기선(요셉) 신부님의 공로를 잊을 수 없다.

매년 2만여 명씩 순례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연풍 성지에는 황석두 성인과 함께 충남 보령 갈매곶에서 순교한 다블뤼 주교, 위앵 신부, 오메트르 신부 등 5인의 성인상과 함께 순교 현양비가 건립돼 있다. 또 최초의 한국인 주교인 노기남 대주교의 동상과 국내 최대의 십자가가 자리하고 있으며 사제관을 비롯한 기념관 건립이 진행되었다.

▣▣▣▣ 아픔 청결한 곳에서 (연풍에서) <김영수> ▣▣▣▣

피가 빛이 되는 사랑보다
 더 멀리 더 오래 내달는 음향 있을까요
 나는 여기 십자가 그늘에 앉아
 목마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살아서 잊지 못할
 죽어서도 잊지 못할 사연 띄우노라면
 골짜기에는 물소리 깊습니다
 하늘에는 바람 푸르게 높습니다
 다 비워 놓고
 자랑스레 생명 들고 나오는 흰 구름들
 나는 아픔 청결한 곳에서
 온 몸 기울여

자비로운 물결에서 편지를 씁니다
 내 오직 뜨거운 편지 하나 들고
 숨차게 무덤의 모퉁이를 돌아
 달리고 달려 다시 연풍 자락에 닿으면
 나는 무더운 여름 지나
 여기 단풍잎 하나로 밝아질까요
 급게 흔들리다가 떨어지면서
 성인의 옷자락 한 구석 스칠 수 있을까요

■ 순교자

◆ 성 황석두(黃錫斗) 루가(1813-1866)

일명 '재건'으로도 불리는 성 황석두 루가는 충청도 연풍에서 양반집 3대 독자로 태어났다. 성장하여 부친의 뜻에 따라 과거보러 상경하던 중, 한 주막에서 천주교인과 사귀게 되어 입교했다. 그 후 부친의 반대를 무릅쓰고 3년 동안이나 병어리 행세를 해가면서 교리서적을 탐독하였고 그 결과 박대하던 부친과 가족들도 입교하였다. 이같이 뛰어난 덕행과 교리지식으로 그는 주교와 신부들의 복사로, 또 회장으로 활동했다. 또 고 페레올 주교에게 금욕과 절제를 위하여 아내와 별거할 것을 허락 받고 독신생활을 하였다. 안 안토니오 다블뤼 주교를 도와 교리서를 번역하여 교회서적 출판에도 참여했다. 1866년 3월 충청도 홍주 거더리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는 안 주교를 몇 심리나 따라가 결국 체포되어 주교와 함께 서울로 압송되었다. 3월 23일 사형을 선고받고 3월 30일 충남 보령군 '갈매뭇'에서 안 주교, 민 신부, 오 신부, 장주기 등과 함께 군문효수형을 받고 54세로 순교했다.

- 성 황석두 루가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시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성 황석두 루가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시여,
- 저희 가족들이 성서를 더 많이 읽도록 빌어 주소서.

